

정광학원 학급감축·재정지원 중단

광주시교육청, 우수학교 선정 등도 제외

사상 첫 강력 제재...사학비리 척결 의지

광주시교육청이 채용비리 관련자의 해임요구를 거부한 학교법인 정광학원에 대해 학급감축과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시 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이 같이 행·재정적 제재를 내린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교육청은 15일 “갑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 교육청의 처분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은 정광학원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학급씩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또 정광고 교장의 이사 취임 승인도 학교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며, 내년까지 각종 우

들의 관행에 ‘철폐’를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급이 감축되면 자연스럽게 교사 감원으로 이어져 기간제 교사 상당수가 퇴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은 다만 학급감축은 광산 지역 소재 모 사립학교가 ‘자율형 사립교’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신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정광고와 인접한 이 학교가 최근 공모 중인 자율형 사립교로 지정·전환되면 광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닐 학교가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과 규정 등에 따라 행·재정적 조치가 불가피했다”며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광학원은 지난 2월 이도 전 이사

장이 인사비리가 있다며 시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과문이 일었으며 감사 결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 중·고교 교장이 해임 요구를 받았으나 법인 측은 정적 처분을 내리는 등 이를 거부했다.

한편 광주·전남교육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광학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는 시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채용비리에 연루된 정광중·고 교장의 해임 요구하는 활동은 이어가기로 했다.

김정섭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시 교육청의 이번 결단이 향후 사학비리 차단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스승의 잘못된 제자들이 피해를 입게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니원침 (7804) 김중두



15일 국립 5·18 민주묘지 내 어린이 체험학습관에 마련된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시민들과 외지 참배객들이 남긴 희망의 메시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5·18 체험학습관에 매달린 ‘희망 쪽지’

“민주주의 지켜줘 고마워요”

“대구에서 왔는데 뜻깊은 하루가 됐어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 고맙습니다.”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5·18과 관련된 자신의 소감과 희망을 담은 500여개의 메시지를 역사관의 문 지하 1층에 들어선 어린이 체험학습관 한 칸에 붙였다.

이 공간에 마련된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걸린 ‘희망 쪽지’에는 민주·인권·평화를 바라는 추모객들의 희망과 염원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5·18 민주항쟁 제29주년 기념 행사 중 하나로 지난달 2일 어린이 체험학습관 개장과 동시에 첫선을 보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공을 반으로 자른 모양(높이 약 2m)으로 만들어졌다.

13일 현재 500여명의 추모객들이 연둣빛 나뭇잎 모양의 쪽지에 5·18 민주묘지를 둘러본 소감과 희망을 적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매달았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안쪽 탁자에 있는 투명한 상자에도 추모객들의 쪽지 200여장이 담겨 있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연령대는 다양해도 이들의 바람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5월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며, ‘80년 5월’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광주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고3 수험생)”,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부산에서 옥회)’,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산초교 김국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마재초교 조민정)’ 등이다.

5월의 참 뜻을 알려줘 고맙다는 메시지도 눈에 띈다. ‘5·18 민주항쟁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만, 많이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참 좋습니다’, ‘5·18 민주항쟁의 실체에 대해 이제 알게 되었네요. 덕분에 민주적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네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등이다.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한 어린이가 쓴 글씨로 보이는 한 쪽지에는 ‘이런 일(5·18 민주항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아주세요’라는 따듯한 충고(?)도 담겨 있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양귀비 불법 재배 적발

여수경찰, 농민 2명 조사

여수경찰은 15일 마약의 원료 식물인 양귀비(일명 ‘앵숙’)를 재배한 최모(68)씨와 반모(52)씨 등 농민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6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여수시 광무동 자신의 집 옥상과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25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반씨는 광무동 한 사할 내 텃밭에 양귀비 24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 등은 약용과 관상을 목적으로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 등이 키운 양귀비 49주를 압수하는 한편, 재배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노인들이 약용 등을 목적으로 죄의식 없이 조금씩 기르는 경우가 많다”며 “마약의 싹을 자른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기기자 ykpark@

대학 등록금 벌려다

공사 현장에서 실족사

15일 오전 8시10분께 보성군 벌교읍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현장에서 측량 보조를 하던 이모(23)씨가 8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목격자들은 “이씨가 측량 보조작업을 위해 텃밭 위에 올라가 일을 하던 중 안전 로프를 가지러 가다 발을 헛디뎠다”고 말했다.

순천 모 대학 토목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씨는 누나인 넷에 4대 독자로, 지난달 15일께 제대해 일당 5만원을 받고 공사 현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선성근기자 sun@



‘스승의 날’ 제자 발 씻어주는 선생님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동명고에서 열린 ‘사제동행 세속화’ 행사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겨 주며 사제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비·돌풍

광주·전남 최고 80mm

15일 오후부터 내린 비는 휴일인 17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이번 비는 곳에 따라 천동·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 등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6일 광주·전남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다”고 15일 예보했다. 예상 강우량은 30~80mm로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휴일인 17일은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점차 맑아지겠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유언으로 실천한 제자사랑

故 이규원 광주과기원 교수 유가족 장학금 6,400만원 기부

지난해 지병으로 숨진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고(故) 이규원 교수 유가족이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장학기금을 기부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고(故) 이규원 교수 유가족이 이날 6천400만원의 장

학기금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5년 광주과기원을 퇴직한 이 교수는 장학금 4천500만원을 내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했으나 지난해 11월 지병으로 별세했다.

이 교수 가족들은 고인이 숨지기 전 ‘기부 약속을 지켜라’고 유언함에

따라 조의금 2천여만원을 더해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광주과기원은 이 기금을 ‘이규원 에어로졸 장학금’의 이름으로 성적 우수 대학원생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995년부터 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고인은 국내 최초로 에어로졸(aerosol·대기중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 등 대기오염 물질) 학문 분야를 새롭게 개척한 선구자로 인정 받고 있으며, 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임정임씨 한국화 부문 대상

제22회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6점 등 667점 입상

제22회광주시미술대전에서 ‘휴먼 사이’를 출품한 임정임(여·45)씨가 한국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와 광주시미술협회는 15일 심사를 통해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건축, 관화, 문인화, 디자인 등 총 9개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미술대전에는 1천111점이 접수돼 대상 6점, 최우수상 8점, 특선 149점, 입선 504점이 입상작으로 뽑혔다. (수상자명단 광주일보 홈페이지 참조)

공모작 수준은 한국화, 서양화 부문에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뛰어난 작품이 많았다. 반면 디자인, 공예, 건축 부문에서는 대상작을 내지 못하는 등 장르별 수준 격차가 두드러졌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와 작품은 ▲서양화 정혜경(여·44) ‘가을연가’ ▲서예 손영진(남·51) ‘승인’ ▲문인화 정미

란(여·55) ‘홍매’ ▲관화 맹지영(여·27) ‘Green Zone2’ ▲조각 김태군(37) ‘5월의 산부’ 등이다.

입상작은 오는 6월5일~10일까지 광주시 북구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전시된다. /오광록기자 kroh@

취업미끼 3천만원 행진

광주 주간지 대표 구속

나주경찰은 15일 ‘아들의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챈 광주 모 주간지 대표 최모(6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2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여·60)씨에게 접근해 아들의 취업을 빌미로 3천만원을 받아 가보전 혐의를 받고 있다. /나주=최승훈기자 srchoi@

광주경찰 “5·18 29주년 함께 추모해요”

현월·주먹밥 먹기·유공자 위문 등 행사

광주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29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다양한 추모행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구내식당에서 주먹밥을 판매해 남은 수익금 전액을 5·18 행사 위원회에 기부하고 어떻게 사는 5·18 유공자 등의 집을 찾아가 위문하기로 했다.

경찰은 14일부터 경찰관과 전·경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월 캠페인을 벌여 나눔의 정신을 되새겼으며, 지방경찰청 경감급 이상 55명과 5개 경찰서장 등 60명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다.

경찰은 기념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8일까지 민주묘지 입구에 설치한 천막에 경찰관들을 배치해 추모객을 돕고 안내 활동도 벌이고 있다. 민주묘지 입구와 인근 청옥 3거리에는 이동파출소를 개설해 순찰활동도 강화했다.

김남석 광주경찰청장은 “기념일을 앞두고 일부 단체 간 마찰도 있지만 전 국민이 5·18 영령을 추모하는 순수한 행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 기념재단 윤광장 이사장 재선출

일부단체 “무효” 주장 갈등

5·18 기념재단 이사장에 윤광장 전 이사장(사진)이 재선출됐다.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관련단체 등의 반발로 지난해 12월 말 이사장 선출이 처음 무산된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15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기념재단 이사회는 이날 광주시 서구 치평동 도시철도공사 사무실에서 재단이사 11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을 새로 선출했다. 이사회는 애초 5·18 기념재단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5월 관련단체 회원 30명이 사무실을 검거하면서 이사회를 열지 못했고 이사회는 곧바로 인근 모처로 장소를 옮겨 다시 이사회를 열



어 이사장을 선출했다.

5·18 기념재단 측은 5·18 29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이사장이 선출되지 못하면서 기념행사 진행에 큰 차질이 우려돼 이사장 선출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5월 관련단체는 “우리가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위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도 재단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재단이 별관 철거에 책임이 있는 만큼 적절한 해명 없는 이사장 선출은 무효”라는 입장을 재확인해 양측의 갈등이 사무실을 검거하면서 이사회를 열지 못했고 이사회는 곧바로 인근 모처로 장소를 옮겨 다시 이사회를 열

DNA 검정 4년 전 강도행각 들뜬

○상습적으로 남의 불건을 훔쳐다 경찰에 붙잡혀 교도소에 수감 중인 40대가 4년 전에 벌인 강도 행각이 DNA(유전자) 검정을 통해 틀러나 추가 입건.

○광주동부경찰은 15일 주점 여주인 등을 상대로 돈을 빼앗은 김모(46)씨를 강도 혐의로 조사 중.

○김씨는 지난 2005년 1월 28일 새벽 부산시내 한 실내포장마차에 손님을 가장해 돈을 빼앗아 오모(여·48)씨 등 3명을 위협해 2차에 걸쳐 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경찰은 김씨를 지난 4월 절도 혐의로 구속한 뒤 여죄 수사를 위해 DNA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추궁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고.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8분 해질 19시 30분 / 달돋이 00시 28분 달짐 11시 05분

비에 젖은 오월 광주 천동·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강우량의 지역 편차가 크겠다.

구분	기온	강수량
광주	14/18℃	14/18℃
목포	15/17℃	15/17℃
여수	15/18℃	15/18℃
안동	16/19℃	16/19℃
구례	14/18℃	14/18℃
해남	15/18℃	15/18℃
장흥	13/17℃	13/17℃
고흥	15/19℃	15/19℃
순천	14/18℃	14/18℃
영광	14/18℃	14/18℃
진도	16/19℃	16/19℃
전주	14/19℃	14/19℃
남원	15/19℃	15/19℃
속초	14/16℃	14/16℃

비다	풍향	피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	1.0~2.5m	목포 06:25	12:03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	1.5~4.0m	목포 18:22	23:49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서	1.5~3.0m	여수 01:11	07:48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서	2.0~4.0m	여수 13:13	19:19

◇주간 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15/26	13/28	13/29	14/29	15/25	15/27